

한상동 목사의 언약적 신앙 이해와 교육에서의 적용

Rev. Han Sang Dong's Covenantal
Faith and Its Application to Education

조성국

고신대 기독교교육과 교수¹⁾

목 차

1. 서 론 | 155
2. 한상동의 글과 설교에 표현된 언약과 교육 | 157
3. 한상동의 언약적 신앙 이해와 교육의 관계 | 162
4. 기독교교육의 기초개념으로서의 언약 | 169
5. 결 론 | 175



요약

한상동 목사의 언약적 신앙 이해와 교육에서의 적용

이 논문은 20세기 한국장로교회의 신앙적 정통성 보존투쟁의 상징적 지도자로 간주되는 한상동 목사의 신앙에 반영된 언약 개념과 그 개념의 교육과의 관계성을 문제 역사적 방법으로 규명한 연구물이다.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한상동의 신앙은 핵심에 있어서 “언약적”이었다. 한상동은 언약의 내용에 충실하였다. 그러나 한상동은 언약의 개념에 대한 이해, 언약개념의 함의의 포괄성, 그리고 언약개념과 교육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충분한 관심을 갖지 못했다. 그래서 한상동의 글과 설교는 언약적 정신의 순결성과 충성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으나 그 언약적 정신은 적용에 있어 교회 및 신학교육에 한정되었다. 그래서 언약과 관련하여 교회와 신학은 강조되었지만, 기독교가정과 기독교학교와 교육이라는 가치는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한국장로교회의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이원론적 경향, 신학교육

에 있어서의 개혁신학의 전체적인 이해 부족, 일제 강점기에 경험한 신앙과 교회의 위기, 해방이후 교회 간신의 특별한 과제, 한상동의 개인적 가족생활 경험 등이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다.

따라서 한상동의 언약적 신앙은 비슷한 시대 상황적 특성인 제국주의시대와 현대신학의 도전에 직면하여 개혁신학전통에서 기독교가정교육과 기독교학교 교육을 촉발시킨 사례와 비교될 필요가 있다. 그 결과는 한상동의 신앙의 영향을 받은 한국고신교단 교회의 향후 과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Rev. Han Sang Dong's
Covenantal Faith and Its
Application to Education*

주요어

한상동, 언약, 기독교교육, 신앙, 한국교회

Abstract

Rev. Han Sang Dong's Covenantal Faith and Its Application to Education

Prof. Dr. Song-Guk JOH (Kosin University)

This thesis is a problem-historical study to investigate and reveal the concept of the covenantal faith of Rev. Han Sang Dong - a symbolic leader of the orthodox faith of Korean conservative presbyterian churches - and its relationship with education.

The result of study revealed that Han Sang Dong's concept of faith was "covenantal". Han Sang Dong was faithful to the content of covenant. However, he had not full interest in the theological concept of covenant, comprehensive implications of covenant, and its relationship with education.

His sermons and other writings reveal pure faithfulness to covenantal idea, but the idea is applied only to church and theology education for pastors. Church and theology in connection to covenant are emphasized, while Christian home, school and education are not taken proper notice of. His insufficient understanding of covenant was caused by conservative Evangelical dualistic characteristics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es, lack of comprehensive theology education on the Reformed theology, crisis of faith and church preservation under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urgent task for church renewal after the Emancipation, and his family life experience.

Han Sang Dong's covenantal faith had better be compared with the covenantal idea of the Western Reformed church leaders having developed Christian family education and Christian schools under the prevailing influence of the 19th and 20th imperialistic government and modern theology. The result of comparison may show what the future tasks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es as well as Kosin denomination under Han Sang Dong's influence are.

Keywords

Han Sang Dong, covenant, Christian education, faith, Korean church

1. 서 론

19세기와 20세기 초반 서구근대사회에는 제국주의 시대정신이 지배했었다. 국가권력이 극도로 팽창하여 국내적으로는 오랫동안 인정받았던 교회의 사회적 권위와 영향력을 빼앗고 교회조차도 압박하는 상태에 이르렀고, 사회의 모든 기능과 영역을 세속화하며, 국민동원을 위해 획일적인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를 합양하려고 국민교육을 제도화했다. 그리고 국외적으로는 자원 및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가의 무력을 동원하여 식민정복을 일삼아 결과적으로 약소국에 대한 폭력이 난무했던 시대였다. 아시아에서는 일찍이 서구근대 국가를 모방했던 일본이 서구제국들과 동일한 행태에 따라 획일적인 신도국가주의 이데올로기로 국민을 동원하여 식민지 확보의 일환으로 서구 제국들과 경쟁하면서 아시아 약소국들을 정복하고 착취하고 탄압하였다.

이 시기에 칼빈의 개혁신학의 영향을 받았던 교회지도자들 중에는 언약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세속사회와 국가권력에 직접 대항하여, 또는 그에 대한 소극적 대응방법으로서 국가와 이원화된 복음주의 운동의 흐름에 부응하여, 기독교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기독교교육의 개념을 탐구하거나 교육개혁

1) * 본 논문은 2009년 10월 19일 고신대학교에서 열린 제12회 한상동기념강좌에서 “기독교교육의 기초개념으로서의 언약: 한상동의 언약적 신앙 이해로부터”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글로서 부분 수정되었다.

** 조성국 교수는 고신대학교의 학부에서 기독교교육을, 신학대학원에서 신학(목회학)을, 대학원에서 기독교교육학을 연구하였고, 남아공화국 네덜란드계 포체스트롬대학교(Potchefstroom-mse Universiteit)에서 교육철학을 연구하여 1997년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7년에는 네덜란드 암스텔담의 자유대학교(Vrije Universiteit)에서 객원연구원으로 네덜란드의 기독교교육역사와 철학을 연구하였다. 현재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운동을 시도하였다. 비록 그 사람들 사이에는 언약이해의 차이, 상황적 배경의 차이, 교육운동 대응대상과 적용범위의 차이가 있었지만 이와 관련하여 네덜란드의 흐룬 판 프린스터러, 미국의 호레이스 부쉬넬, 그리고 한국의 한상동은, 함께 비교논의하면서 고려할 때 언약과 교육의 전체 관계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흥미로운 경우이다.

흐룬 판 프린스터러는 19세기에 네덜란드가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애에 따라 공립학교교육제도를 확립할 때 언약이해를 기초로 기독교학교운동을 시도했던 지도자였고, 호레이스 부쉬넬은 19세기 미국에서 국가주의로부터 회피적인 태도를 취하며 이원론적 태도를 견지했던 복음주의부흥운동의 영향과 그 반작용에 대응하여 언약이해를 기초로 기독교적 양육의 본질을 논구하였던 지도자였으며, 한상동은 20세기 한국교회 지도자로서 제국주의 일본의 종교군국주의 이데올로기 숭배의 압력에 대항하여 언약의 정신에 따라 신사참배반대운동을 시도하였고, 해방이후 한국장로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신학교육개혁을 시도하였던 지도자였다.

흥미로운 것은 이 세 사람의 언약과 교육이해에는 개인의 가정배경이 반영되어 있기도 하다. 두 사람은 자녀가 없었고, 또 한 사람은 어린 아들의 죽음을 경험했다. 기독교적 가정의 양육배경 유무도 영향을 미쳤다. 두 사람은 경건한 가정에서 양육 받았고 다른 한 사람은 불신가정에서 태어나 양자가 되었으나 제사거부를 이유로 파양 당했다. 이러한 가정 배경에서의 경험세계는 언약과 교육이해와 적용범위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처럼 보인다.

비록 시대적인 순서대로라면 한상동이 가장 뒤에 나오지만, 한상동의 경우를 먼저 분석한 후 호레이스 부쉬넬, 그리고 흐룬 판 프린스터러를 살펴보려 한다. 그 이유는 언약과 교육의 개념이해와 적용의 범위에 있어 한상동보다 호레이스 부쉬넬이, 그리고 흐룬 판 프린스터러가 더 확장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상동을 통해 언약개념을 반성하는 금번 한상동 강좌의 의도에 따라 한국교회의 과제 반성에 비추어볼 때 이 순서가 더 적절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글의 논의는 언약에 대한 성경신학적, 교의학적 분석방법 대신 교육문제에 대한 문제역사적 논의방법을 따른다. 그래서 언약과 교육에 관한 이해와 그것에 영향을 준 배경적 원인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언약이라는 공통근거와 다양한 적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언약과 교육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시도하려 한다.

2. 한상동의 글과 설교에 표현된 언약 개념과 교육

한상동은 초기 평양장로회신학교에서 기본적 수준에서 신학을 수학한 후 기독교신앙의 순수성 유지 및 교회의 회복을 위해 활동하였던 사역자적 지도자였다. 따라서 특정 주제에 대한 깊은 신학적 논의의 결과물인 논문과 저술들을 남긴 신학자가 아니라 신사참배반대운동 그리고 교회개혁운동과 경건운동을 주도하였던 경건한 지도자이면서 사역자였으므로 그의 사상들은 설교와 짧은 논설로, 그리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라기보다는 단편적으로 표현되었다. 언약사상을 명료한 개념과 체계형식을 통하여 이해하고 표현하는 일은 당시대에 개혁신학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면서 기초를 놓았던 박윤선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일이다(이상규, 2000, 300-305; 2006). 비록 한상동이 해방이후 박윤선과 한명동의 개혁신학 사상에 동의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였으나 한상동의 깊은 내면적 기준은 초기 평양장로회신학교의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이며 복음주의적인 정통신학에 두어져 있었다.

한상동은 그의 설교에서 “언약”이라는 표현을 의미 있게 거론하여 상세하게 다루지는 않았다. 그의 설교집에는 내용상 “언약”이라는 표현을 직접 다룬 단 한편의 설교가 남아있는데 그 제목은 “복과 저주 그 근엄한 교체”(신

11:26-32)이다. 그는 이 설교에서 복과 저주의 길을 제시한 후 결단하도록, 그리고 은혜의 기회를 선택하여 회개하도록 독려한 후 신명기27장의 언약체결 광경을 떠올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을 언약의 땅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실 복을 언약의 축복이라 칭했고, 이것은 그리스도가 중보가 되시는 은혜의 언약과 동일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해당부분의 소제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복은 궁극적으로 우리까지 받을 복입니다”였다. 이에 근거하여,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신사참배반대자들이 하나님께서 계명을 준수하여 우상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복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였다(이상규 최수경, 2000, 142-143).

그리고 그 설교에서 한상동은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중보, 그리스도의 피가 기초가 된 언약으로서, 옛 언약 곧 구약보다 더 좋은 약속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으로 성취되어 충만으로 나아가는 새 언약의 내용은 성령의 변화, 하나님과의 화목, 여호와를 아는 지식, 죄의 용서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즉 새 언약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피의 일꾼으로서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그리고 죄의 회개를 통하여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새 언약의 축복은 결국 내세, 곧 새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영광을 소개하였고, 그 축복은 산상보훈에 반영되어 있다고 말했다(이상규 최수경, 2000, 143-146).

간단한 설교문을 통해 언약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었겠지만 언약내용의 주요 요점은 대충 언급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에서 한상동에게 언약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개념이라 기보다는 마치 축복의 약속과 같은 의미로 이해되었다.

그 외에 언약이라는 표현은 “세례와 성찬”(고전11:23-34)라는 제목의 설교에 나온다. 한상동은 성찬을 해설하면서 성찬이 새 언약이고, 포도주가 언약의 피이며, 이 새 언약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언약의 의미를 여기서 설명하지는 않았다. 그 대신 언약이라는 말과 명령이라는 말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였다(한상동, 1970, 152-155).

한상동의 설교에서는 언약이라는 표현이 교육과 직접 연결되어 설교되지는 않았다. 한상동의 설교 육필자료집에는 어린이주일과 어머니주일의 설교를 연상하게 하는 연속적 설교들이 여러 편 기록되어 있다. 그는 설교문 “어린이에 대하여”에서 예수님의 평가처럼 어린이의 겸손한 태도, 어린이 생명의 귀중함을 인식시키려 하였고, 어린 시절의 경험이 평생 지속된다는 경험적 교훈을 덧붙였다(한상동목사설교집 2:38-40). “어린이의 축복은”에서는 인간은 자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되게 해 주셔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어린이는 어른에 비하여 겸손하고 욕심이 없어 천국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 어린이의 축복은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있다는 것, 그리고 부모의 신앙생활이 모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한상동목사설교집 3:112-115). “예수께서 보신 어린이”에서는 어린이를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에 비겼고, 예수님은 어린이의 상태를 인생 중에서는 범죄의 개념이 아닌 사랑의 개념으로 간주하셨다고 해설했으며, 어린이가 성장하면서 죄악 된 세상을 보는 현실에 대하여 통탄하였다(한상동 목사설교집 4:26-27).

한상동의 교육 목표에 대한 이해는 설교 “교육의 기초는 신앙으로”와 “교육의 기초는”에 나타나 있다. 이 설교에서 그는 사람들이 교육을 취업을 위한 목적, 돈을 잘 벌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식이며,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돈을 추구하는 일에는 불화와 범죄가 있고, 지식이 힘과 명예와 행복과 능력을 얻게 하지만 지식이 인간의 모든 욕구를 채워줄 수 없고, 특히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도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기독교신자는 교육의 기초를 신앙에 두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신앙 없는 도덕은 진실성 없는 외식을 낳고 신앙은 사람을 진실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따라서 궁극적인

교육의 기초는 결국 신앙이라고 정리했다(한상동목사설교집 2.2:1-3; 4).

부모의 교육적 역할에 대하여 한상동은 설교문 “자녀에 대한 부모”에서, 자식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본능으로 간주하였고, 그에서 더 나아가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함으로써 자녀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한상동목사설교집 1:23). “자녀교육에는”에서는 부모는 자녀를 생육과 번성 이상으로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교양과 훈계의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예수님과 신자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영생에 이르도록 양육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좀 더 구체화하여 주의 교양이란 심신의 발달을 고려하는 것을 뜻하며, 훈계란 불완전한 점을 교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따라서 부모는 권위를 남용하여 자녀를 가혹하게 다루지 말고 동정심을 가지며 신앙생활로 잘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한상동목사설교집 7:17-20).

특히 한상동은 설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에서 자녀가 복을 받게 해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보고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복된 삶의 이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훈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녀교육은 부모의 임무인데, 칼빈주의 국가에서는 부모들이 사립학교를 설립하여 경영하는 것을 성경적이라고 받아들인다고 소개했다. 그는 자녀가 복을 받아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관심일진대, 자녀가 일류학교에 입학하여 세상지식만 가지는 것으로 다 된 줄 아는 사람, 돈과 권세가 교육의 목표인 양 간주하는 부모의 인식도 잘못된 교육관에 기인한 것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자녀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자녀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 부모는 기도하고 자녀를 훈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하나님의 교훈과 축복이 자녀가 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보았으므로 부모들이 자녀가 복을 받고 살도록 가르치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한상동목사설교집 6:67-70).

자녀들에게 부모에 대한 공경과 순종을 요구하는 설교도 많았다. 어머니주일 설교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에서 그는 부모를 하나님의 그림자로 간주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교하였고(한상동목사설교집 1:6), 또 “자녀들이여”에서는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림자로서 부모에 대한 공경은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림자이므로 순종과 공경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다(한상동목사설교집 6:71-72). 애베소서 6:1-4에 근거한 설교에서 부모의 은혜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길이고, 천국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영주하는 곳이라고 설교하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이라고 권했다(한상동, 1970, 232-241). “부자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부모의 원형이 되신다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그 분이 직접 하실 일을 부모를 통하여 실행하게 하신다고 했다(한상동목사설교집 6:83-85).

한상동은 설교문 “자녀들이여”에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해야 할 이유로 연로한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축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자녀의 작은 효도가 부모에게 큰 위로가 되어 그를 축복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한상동목사설교집 6:71-72). 자녀들은 부모의 자식을 향한 애착과 사랑을 이해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권했다. 그래서 설교문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에서 자녀의 잘 됨을 위한 부모의 의향을 이해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권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반영되었듯이 계명을 순종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강조했다(한상동목사설교집 3:68-70).

한상동은 “부모에 대한 계명은”에서 오계명과 다양한 성경구절들을 인용하면서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을 독려하였고 불순종에 대한 형벌을 경고하기도 했다(한상동목사설교집 2:36-40). “부모를 공경하라”에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저주하는 사람은 동일한 댓가를 치른다고 했다(한상동목사설교집 4:28-30). 부모에 대한 불순종의 후회는 인간의 특성이기도 한데 부모가 임종한 후에는 후회한들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비록 회개할 수 있으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더 복된 일인 것이다(한상동목사설교집 6:83-85). 그러나 그는

노예적인 혹은 의무적인 순종보다 은혜에 감복하여 순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동목사설교집 1:85).

설교문 “아버지에 대한 정신”(요8:31-44)에서 한상동은 마귀와 하나님의 아버지 됨에 대한 성경구절들을 나열한 이후, 육체의 부모는 신체 전체와 유전성까지 준다는 사실을 근거로 그리스도인은 아버지의 신앙의 후사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가장 큰 효성이라고 했다. 그는 그리스도인은 그 연속선에서 하나님의 후사라고 했다(한상동목사설교집 2:16-20).

교육에 대한 한상동의 견해들은 이처럼 어린이주일과 어머니주일 설교에서 나타났고, 성경의 생활적용 형태를 취했다. 그리고 직접 언약이라는 표현을 근거로 부모와 자녀 사이 관계와 교육을 설명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3. 한상동의 언약적 신앙 이해와 교육의 관계

한상동의 설교에 표현된 “언약”이라는 용어에 한정하여 언약을 논의한다면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언약과 교육의 발전적 논의에 있어 큰 소득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말이 한상동의 신앙과 교육이해에 언약이 주요한 요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상규 최수경(2000, 7)이 한상동의 글을 편집한 책의 서문에서, “그는(한상동) 코람데오를 말하지 않았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았고”라고 표현한 경우처럼, 언약의 경우에 있어서도 한상동은 언약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고 언약 개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신앙과 교육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언약의 핵심적 구조와 요소들은 그의 신앙이해에 있어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에 미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에 대한 설교에서도 그 언약의 함의 요점은 표현되었다고 판단되기도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한상동과 관련하여 언약과 교육을 논할 때 우선 언약이라는 명시적 용어 자체보다 내용상 언약을 표현하고 있는 요소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자는 언약보다 “언약적 신앙이해”라는 표현이 그에게 더 맞는 방식이라고 여긴다.

성경에서 언약은 팔머 로벗슨(Robertson, 1980, 7)이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 “주권적으로 시행된 피의 결속” 개념이다. 하나님과 개인 혹은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배타적이고도 영속적인 특별한 계약적 관계개념이다.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그(집단으로서의 가족, 국가, 교회)의 유일한 하나님(왕)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된다. 그 언약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약속과 예배 및 행위규범(계명과 율법)들을 주셨다. 따라서 그(들)이 언약 관계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충성과 순종을 지속한다면 약속된 구원과 축복을 받는다. 그러나 정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배반(우상숭배)과 불완전한 충성과 불순종을 계속한다면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 저주와 심판상태에서의 언약관계 회복은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언약이해를 위해 개혁신앙을 정리한 교리문서들의 정리를 덧붙이면 하나님의 아담(인간)과의 첫 언약이 행위언약이라면, 그리스도를 통한 두 번째 언약은 은혜언약이다. 은혜언약은 하나이지만 율법시대와 복음시대에 방식에 있어 조금 다르게 집행되었다. 복음시대의 변화는 은혜의 결과 회개와 함께 새 언약의 중보자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 됨과, 그에 따른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다(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7). 언약의 표는 율법 시대에는 할례였고 복음시대에는 세례이다(하이델베르크교리문답서 74문). 이것이 언약의 기본적인 구조이다.

이러한 언약의 핵심 구조와 주요 요소들은 한상동의 신앙과 설교의 핵심과 일치한다. 한상동은 처음부터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서 우상숭배로 간주하였다. 일본의 왕을 신격화하여 신봉하게 한 소위 일본의 국가이념종교화를 엘리야시대의 바알숭배와 다니엘 시대의

우상숭배에 비겼다. 그로 하여금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저항하게 한 것은 신사참배가 하나님과의 배타적인 언약관계의 배신을 뜻했기 때문이다. 물론 한상동이 일차적으로 간파했던 것은 언약개념보다 신사참배가 십계명 중 1-2계명을 어기는 행위였다는 점이다.

한상동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많이 설교했다. 다소 율법적인 인식이라는 피상적인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나 계명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 초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언약에의 배신에서 예상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한상동은 신사참배가 조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초래할 것으로 확신하였다. 동시에 그는 해방이후 회개가 사죄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제안하면서 철저한 회개를 절규하였다(이상규 최수경, 2000, 17-24). 그리고 6.25동란 중에도 회개하는 과정에서 부산이 위기를 모면한 것을 회개에 의한 구원의 증거로 간주하였다(이상규 최수경, 2000, 34-35). 회개를 통한 구원은 은혜 언약 안에서 언약관계의 회복을 위한 유일한 길이었다.

한상동이 계명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관철시키고자 했던 것은 비록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으나 언약관계의 핵심요구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신6:4-5)는 요구에 순전하게 부응하고자 했던 열심이었다. 한국교회가 참된 회개를 통해 회복되어야 할 필요를 절감하여 기존 한국교회지도자들의 철저한 변화를 요구하였고, 더는 우상숭배에 굴복하거나 타협하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에도 불구하고 충성할 사람들을 새로운 방법으로 양성하고자 했던 것은 언약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본질이 요구하는 바였다. 그에게 참되지 못한 신학은 신사참배의 원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사참배와 동일한 타협으로 간주되었다.

이처럼 한상동이 “정통신앙”으로 간주했던 내용의 구조와 요소들은 언약의 핵심구조와 요소들이었다. 특히 그의 관심이 교회의 순결과 신학교육의 정통

성에 집중된 것에 대하여 교회가 새 언약의 공동체라는 점, 신학교육은 곧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의 보존과 직접 연관된 것이라는 점에서 비록 그가 언약이라는 표현을 떠올리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핵심을 놓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의 신앙을 “언약적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체계적인 신학적 이해가 부족했던 것은 한상동으로 하여금 언약의 또 다른 주요한 강조점과 과제를 좀 더 진지하게 다루지 못하게 했다. 언약은 개별성뿐만 아니라 언약체결의 대표자 안에 집단으로서의 공동체를 포괄하는, 공동체에 효과를 미치는 개념이었다. 행위언약이 아담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유효했던 것처럼(웨스트민스터대교리문답 22), 은혜언약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유효한 것이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표현된 언약은 언약체결 당사자들의 영구한 후손들을 언약 안에 포함시키는 혈연승계적인 원리를 근간으로 하고 있었다. 그래서 후손들도 그 언약이 자신들과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언약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언약의 요구를 수행하면서 약속된 바를 기대할 수 있어야 했다. 이러한 언약의 혈연승계적 원리 때문에 할례는 언약의 표징으로 간주되었고, 언약의 책인 신명기서에서 언약 교육은 직접 부모에게 위임되었다(조성국, 2000, 74).

개혁신학을 따르는 서구교회공동체는 처음부터 언약을 가족공동체와 교육에 직접 연결되는 기초적 개념으로 간주해왔다. 그래서 교회에서 유아도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로 간주되어 새 언약의 표와 인장이라고 표현된 유아세례를 받았다(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28:4, 6; 대교리문답서 166). 언약의 근거에서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어려서 죽은 유아들과 지적 장애자들도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있었다(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10:3). 은혜언약은 율법시대에 가족을 언약공동체의 기초단위로 간주하였고, 복음시대에도 가족을 무력화하고 교회로 완전히 대체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가족을 교회라는 언약공동체의 기초단위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언약적 근거에서

부모는 자녀들이 온전한 언약공동체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했다. 따라서 서구개혁교회 공동체는 구약성경 신명기서의 경우처럼 언약을 독특한 기독교교육의 근거이며 이유로 간주하였다.

한상동은 비록 언약적 신앙을 가졌으나 가정과 교육에 있어 이러한 언약의 함의를 충분하게 인식하지 못했거나 설사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제를 일차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았음에 분명하다. 한상동의 교육관련 설교에, 비록 언약교육의 핵심 내용이 반영된,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어야 하고, 교육의 기초가 신앙이며,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하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나 언약과 가족의 필연적 관계, 부모의 교육적 책무에 대한 언약의 근거가 충분하게 다루어지지는 못했다. 비록 신학교육에 대한 과제수행이 그에게 우선적인 것이었기는 하지만 그에 비하여 기독교가정교육과 기독교학교교육에 대한 과제에 그는 적극적이지 않았다. 칼빈주의 개혁교회공동체가 부모들에 의한 사립학교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간주하고 있다는 말을 언급하였을 뿐, 언약이 그 주된 이유라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물론 우리는 한상동의 언약이해에 반영된 부분적 한계를 한상동의 무지와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 한계는 우선적으로, 한상동이 수학한 평양장로회 신학교의 신학교육의 한계였다고 해야 한다. 이상규(2006, 258)가 이미 지적했던 것처럼, 초기 한국장로교회는 개혁신학에 근거한 표준문서인 웨스트민스터표준문서전체를 인정하기는 했으나 선언적이었고 교회의 공고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엄격한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지도 않았다. 개혁주의 신학의 전체를 가르치지도 않았다. 박윤선도 고려신학교의 노선에 대한 선언에서, 해방직후의 시점에서, 정통신학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개혁신학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개혁신학을 주장하지도 않으며 개혁신학을 고조하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상규, 2006, 283).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둘 때

언약의 개념과 그 함의의 포괄성에 대하여 한상동이 충분한 통찰을 가지지 못했다고 탓할 바 아니다. 박윤선과 한명동의 개혁신앙 입장에 한상동이 동의하며 수용적이었으나 한상동의 깊은 내면을 형성하고 있는 신앙과 경험은 평양장로회신학교의 유산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한상동이 기독교가정과 교육에 대한 좀 더 깊은 통찰, 그리고 그에 근거한 사역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던 데에는 그에게 거의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준 현상적인 경험세계도 한 몫 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한상동의 현상적 경험에서 가족은 언약관계의 세대적 지속성을 이루는 통로로서의 개념이 될 수 없었다. 그는 독실한 불교가정에서 태어나, 6세에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무자했던 당숙의 집에 양자가 되었고, 지속적으로 고독하게 성장했다. 청년기에 기독교신앙을 받아들인 후 제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양가에서 쫓겨났고, 결국 문중회의에서 파양 당하였고, 결국 집안에서 아주 축출되었다. 그는 결혼생활에서도 세대를 이어갈 자녀를 얻지 못했다.

한상동의 조카 한기태(이상규 최수경, 2000, 223)의 회고에 기록된 것처럼, 한상동은 가정의 따뜻함과 친밀한 교제보다 쓸쓸함, 슬픔, 고독이 많았다. 한기태가 공개한 사적인 편지에서 한상동은, “나의 평생이 어려서 생가부모의 알드란(알뜰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고(못했고), 또한 자식이 없으니 자식에게 알드란(알뜰한) 사랑을 솟아보지도(쏟아보지도) 못한 나의 인생 됨이 사랑에 심히 결핍한 사람이란 대서(데서) 나는 괴로웠다”고 고백했다 (이상규 최수경, 2000, 224). 비록 목사로서 어린이주일과 어머니주일에 가정과 가정교육에 대하여 설교하였으나 그의 현상적 생활경험은 가정과 자녀교육의 언약적 개념을 깊이 반추하고 발전시키기에 충분하지 못했음에 분명하다. 그래서 한상동은 가정의 사람이기보다 교회의 사람이었고, 아버지라기보다 목사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가정과 자녀교육은 일차적인 과제가 아니었다.

한상동이 교사경험을 가졌다는 점이 기독교교육에 대한 생각의 발전과

관련하여 무척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는 잠시 실용학교의 교사로 일한 일도 있고, 또 진주 광립학교의 교사로 일한 일도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학교에서의 교직경험이 기독교교육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무척 궁금하지만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는 의미 있는 내용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교사직이 목사가 되는 과정에 잠시 거쳐 간 길로 기록되었을 뿐이다. 한상동도 정리된 자전적인 글에서 교직경험에 관하여 소상하게 말하지 않을 만큼 이전의 교직경험이 그의 사상과 사역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언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다면 그는 기독교 초등, 중등학교에 대한 생각을 발전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상동은 자신의 에너지를 오직 교회와 신학교육에만 집중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상동은 그의 신앙에서 언약의 핵심교훈을 밝히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언약적 신앙을 가졌다고 판단되지만, 그 언약적 이해는 충분하지 못했다. 비록 가정과 교육에서 언약교육의 주요 내용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그의 불충분한 언약이해는 가정교육과 기독교학교교육으로 그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그 활동들도 독려할 만큼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데 이르지 못하게 했다. 그것은 그의 신학 및 가정 배경과 시대적 한계였다. 물론 무척 아쉽기는 하지만 한상동은 교회와 신학교육에 국한된 그의 과제수행만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그 나머지의 발전적 과제는 한상동의 언약적 이해를 고려하면서 언약의 관점에서 더욱 확장시켜야 할 다음 세대의 과제라고 간주해야 한다. 그것이 한상동 기념강좌의 의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기독교교육의 기초개념으로서의 언약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 거의 비슷한 기간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언약을 기독교교육의 기초개념으로 재발견한 서양의 두 사람은 우리의 주목을 끈다. 한 사람은 미국 기독교종교교육의 대부로 간주되는 호레이스 부쉬넬(Horace Bushnell, 1802-1876)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네덜란드 개혁교회 부흥운동 및 기독교학교투쟁 지도자인 흐룬 판 프린스터러(Groen van Prinsterer, 1801-1876)이다. 한상동에게 부족했던 점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일에 이 두 사람이 시도한 언약개념과 교육의 본질 논의 및 교육활동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본다.

1) 호레이스 부쉬넬의 언약 개념이해와 가정교육

호레이스 부쉬넬은 1802년 미국 코네티컷 밴텀에서, 경건한 부부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어린 시절 경건한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청년기에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 방황하였다. 잠시 교사로 일한 일도 있었으나 법률을 공부하였고, 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로 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1831년 부흥운동의 영향으로 회심하여 신앙심을 회복한 후 진로를 바꾸어 예일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다. 부쉬넬은 신학적으로는 뉴잉글랜드의 칼빈주의와 당시대의 계몽주의적 낭만주의의 영향, 곧 정통과 진보의 통합자를 자처하였고, 또 복음주의자들의 초월적 회심과 구원에 대한 과도한 강조를 비판함으로써 자유주의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그의

삶과 기독교교육에 큰 영향을 준 사건은 부흥운동에서의 자신의 회심사건과 사랑하는 어린 아들의 죽음이었다(Bushnell, 2004, 18).

그는 부흥운동의 핵심으로 간주된 회심과 별개로, 언약에 근거한 양육이 기독교교육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그의 저서 「기독교적 양육」(Christian Nurture)에서 밝혔다. 그는 칼빈주의자들이 어린이가 구원의 언약에 참여 있다고 인정하여 세례를 주면서도, 복음주의의 영향으로 구원의 또 다른 조건인 개인적 회심 경험을 필연적인 것으로 강요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회심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양육의 은혜도 있고, 회심이 성인기의 은혜라면 (기독교적) 양육은 유년기의 은혜라고 말했다(Bushnell, 2004, 180). 그는 자신의 책에서 언약에 기초한 기독교가정교육을 깊이 논하였다.

부쉬넬은, 기독교가정의 어린이는 언약 안에 있으므로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유아세례는 부모와 자녀의 유기적 연결성을 가정하고 있다고 보았고, 처음부터 개인적 회심사건과 무관하게 자녀를 불신자와 구별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한 것을 뜻한다고 보았다. 그는 구약의 언약은 가정의 언약이었고, 언약의 봉인은 신앙의 봉인으로써 가족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신약의 언약에서도 언약이 자손들을 포함하는 언약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증거 되고 있다고 논증하였다(Bushnell, 2004, 129). 어린이는 부모의 신앙 안에 그리고 동일한 약속 안에 머문다고 보았으므로 어린이는 명확한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것이다.

그는 기독교가정의 어린이는 처음부터 경건과 순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보았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생리적으로 그리고 성품에 있어서 유기적인 연결성이 있는 것처럼 부모의 기독교적 정신과 삶이 어린이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부모의 죄악과 잘못된 습관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경건도 자녀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그는 종교는 가정의 종교일 때 삶에 완전히 파고든다고 보았고 부모는 종교적인 성품으로

경건과 사랑을 느끼게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부모는 가정을 경건과 사랑, 믿음, 세상을 따르지 않는 아름다운 생활의 장소로 만들어 자녀들이 주님의 양육과 같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Bushnell, 2004, 105).

부쉬넬은 회심에 전적으로 기대면서 기독교적 양육을 소홀하게 하는 경향성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하였다. 부모가 자녀의 미래의 회심사건을 기대하면서 자녀에 대한 기독교적 양육에 무관심한 것은 타조의 잔인한 양육방법과 같다고 비판하면서 자녀가 경건한 성품을 형성하도록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양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모는 가정이 가족 구성원 전체가 생물학적으로(유기적으로) 연결된 조건에서 공동의 정신, 이해, 정서, 원리에 이른다고 보았기 때문에 자녀는 매일 그 가정의 정신을 들여 마신다고 말했다. 따라서 경건한 가정의 정신이 자녀들이 숨 쉬는 공기처럼 영향을 주어 성품을 형성하고 세계관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정반대로 만일 부모가 경건하지 않고, 예배생활에 열심이 없고, 종교생활을 경멸한다면 가정은 자연히 불경건을 가르치는 학교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부쉬넬은 기독교적 성품을 형성하는 기독교적 양육은 신체의 양육이 시작될 때 곧 바로 시작되어야 하고, 가장 처음의 각인 시기에 어머니의 사랑과 함께 경건과 성령에 속한 성품이 각인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러한 각인으로 심겨진 씨앗들이 나중에 자녀가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고 증거 하는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고 했다. 그는 생애의 초기 3년간은 그 이후의 모든 훈련시간보다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부모의 정신과 성품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자녀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교육은 필연적이라고 보았다. 부모의 경건한 성품과 근면함과 좋은 습관은 자녀에게 그대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녀들의 생활습관교육의 중요성을 논의하면서 식사의 방법과 습관과 예절, 의복의

청결을 다루었다.

부쉬넬은 부모에게 자녀를 향하여 너무 심한 금지, 다툼, 억압, 강요는 불쾌감과 낙심을 형성하므로 칭찬과 협조의 방법을 제안했다. 거룩한 순종의 길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자녀대우법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부모의 질서 있는 다스림이 이루어져야 가정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은혜와 경건이 권위에 전제되어야 하고, 안정과 사랑의 일관성 있는 보살핌이 있어야 하며, 형벌과 징계는 적절해야 한다고 했다. 가정은 놀이와 축제가 있는 즐겁고 흥겨운 장소가 되게 해야 하고, 어머니는 재미있는 저녁시간을 만들어주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주일은 온화하고 즐거운 날이 되게 해야 하고 자녀들이 주일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총고했다. 예배와 교리공부와 기도에서 부모와 함께하고, 그것들이 진실 되고 현실성이 있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부쉬넬은 가정과 종교는 동등의 단어이고 둘 다 사랑과 경외의 이름이라고 했다. 가정은 종교의 자리로서 참된 가정의 종교훈련은 가정을 작은 교회로 만든다고 했다(Bushnell, 2004, 386).

이상에서 간단히 정리한 것처럼, 언약은 호레이스 부쉬넬로 하여금 부모와 자녀의 특별한 관계와 그 성격을 새롭게 보도록 만들었고, 부모의 가정교육을 기독교교육의 일차적 과제로 삼게 만들었다.

2) 흐룬 판 프린스터러의 언약 개념이해와 기독교학교투쟁

흐룬 판 프린스터러는 1801년 네덜란드 텐 하흐에서 목사가 많은 가계의 궁중의사 아버지와 부유한 은행업자 딸이었던 어머니의 독자로 태어났다. 일찍 교리문답을 배웠고 청소년기에 입교했다. 그는 1823년 레이던대학교에

서 법학과 문학으로 동시에 두 개의 박사학위를 받았고 왕실역사연구관으로 일했다. 그는 대학시절 칼빈주의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아 경건한 신앙인이 되었고, 독실한 신앙인이었던 아내와 함께 1830년대 이후 네덜란드교회와 사회의 칼빈주의 부흥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판 프린스터러는 한편으로는 교회지도자로서, 당시 국가개혁교회가 계몽주의의 영향을 수용하여 17세기의 정통적인 칼빈주의 신앙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통한하게 여기고 다시 정통적인 칼빈주의 신앙고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교회법적 노력을 기울였고, 정통적 칼빈주의 신학에 따라 국가개혁교회로부터 분리하여 나와 복음주의 운동을 시도했던 교회지도자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을 옹호하였으며 기독교적 사회개혁운동에 앞장섰다.

그는 왕실역사연구관으로서 16세기 말부터 네덜란드 사회를 주도했던 칼빈주의적 세계관이 19세기 초반,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점차 거부되고, 네덜란드사회가 모더니즘 세계관에 따른 세속국가 중심적인 사회로 변화하는 시기에, 모더니즘이 언약적 방향에서 불신앙적 종교성을 가진 세계관이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고, 다시금 언약적 기초에 따라 기독교적 세계관에 따른 국가(사회)가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는 유명한 저서인, 「조국역사편람」(Handboek der geschiedenis van het vaderland)과 「불신앙과 혁명」(Ongeloof en revolutie)을 펴냈다. 그는 당시 제국주의 경향의 국가이념이 지닌 종교성을 역사철학적 논의로 밝히 드러내었고, 그에 대항하여 개혁주의적 복음운동으로 개혁교회공동체의 자유 및 정치, 사회적 변화를 시도했다.

그의 사회개혁운동은 특히 기독교학교운동에 집중되었다.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걸쳐 네덜란드가 근대국가제도를 확립한 후 국가가 국민에 대한 국가이데올로기 함양을 목표로 학교교육을 통제하면서 학교에서 성경과 교리교육을 배제하고 그 대신 애국심과 도덕성을 중심한 교육을 강요할 때 그는 언약의 개념에 근거하여 부모들이 신앙에 따라, 그들의 자녀들이 성경과 교리를 배울 수 있는 기독교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정당성과 국가의 지원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판 프린스터러는 1860년, 복음적 지도자들과 연대하여 기독교학교연합조직체를 구성하였고, 이 연합체는 네덜란드의 기독교사립학교가 신앙교육의 자유를 얻어가는 과정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 기독교사립교육운동은 기독교정치운동으로 발전하여 20세기 전후 그의 후계자들을 통해 네덜란드에서 신칼빈주의 세계관에 따른 정치, 문화, 교육 개혁이 실험되었다.

판 프린스터러는 학교교육도 종교적인 것으로서 언약적 태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간파하였다. 그는 국가이념교육에 초점 맞춘 공립학교교육이 그리스도인의 언약적 태도에 반역하는 불신앙적인 세계관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크게 우려하였고,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를 그러한 학교에 보낼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획일적인 국가이념중심 교육이 국가의 통합에 기여하는 것도 아님을 벨기에의 독립사건으로 논증하였다. 그는 언약의 기초에서 국가가 부모의 자녀교육의 권리를 빼앗아 독점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언약의 기초에서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거의 절대적인 권리와 책임을 강조하였다. 성경과 교리의 교육은 언약적 의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포기하거나 국가에 위임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부모의 신앙에 따른 사립학교교육의 자유를 국가는 보장해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립학교의, 공립학교와의 법적 동등성을 주장하였고, 국가의 동등한 재정지원을 요구하였다(조성국, 2008).

판 프린스터러는 자녀가 없었다. 자신의 현상적 경험세계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기독교가정에서의 자녀교육 원리에 대한 책을 쓰지 않았고, 또 일반적인 기독교교육론에 대한 책을 남기지 않았는지 모른다. 그 대신 네덜란드의 명망 있는 역사가, 정치가였으므로 그의 주된 관심은 가정보다 법과 학교제도 개혁에 두어졌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의 후계자들인 신칼빈주의자들은 가정과 기독교학교의 교육, 부모의 교육권리, 개혁주의적 교육원리 등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그와 관련된 많은 글들을 남겼다. 특히 20세기 전반기에

얀 바트링크와 같은 교육학자는 개혁주의 교육이론가로서 언약에 기초한 기독교교육, 교육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에 관한 저술들을 남겼고 네덜란드 사회의 기독교교육진보에 크게 기여하였다. 기독교학교는 네덜란드계 개혁교회 공동체에서 크게 발전하였고, 네덜란드계 이민자들을 통해 다른 나라에서도 지속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오늘날 기독교학교의 앞선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5. 결 론

한상동의 신앙은, 핵심에 있어서 “언약적”이었다. 한상동은 언약의 내용에 충실하였다. 그러나 언약의 개념에 대한 이해와 언약 개념의 함의의 포괄성, 그리고 언약개념과 교육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충분한 관심을 갖지 못했다. 그 이유는 20세기 전반 한국장로교회가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이어서 이원론적 경향을 가지고 있었고, 체계적인 개혁교리와 교리교육에 익숙하지 않았고, 가장 잔인한 제국주의적 종교 압제에서 신실한 신앙과 교회의 지속 자체에 엄청난 위기를 느꼈던 특별한 상황, 그리고 해방 후 교회의 갱신이라는 특별한 과제가 있었고, 한상동의 개인적인 현상적 경험세계가 그 관심을 한정하였기 때문이다.

제국주의의 종교적 박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한상동은 언약적 정신의 순결성과 충성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언약적 정신은 그에게서는 교회에 한정되었고, 또 신학교육에 한정되었다. 교회와 신학교육에 한정된 언약이해의 경향성은 박윤선 이후 많은 신학자들의 개혁주의 신학과 신학교육의 부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었고, 그 경향성은 한국교회의 이원론적 태도가 지속되는데 기여하였다. 언약과 관련하여 교회와 신학은 강조되었지만, 언약과 관련하여 기독교가정과 기독교학교와 교육이라는 가치는 제대

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언약신학이 호레이스 부쉬넬에게서 어떻게 가정교육으로, 그리고 흐룬 판 프린스터러에게서 어떻게 기독교학교교육으로 발전되었는지 비교하는 일은 한상동과 그 이후 한국교회의 과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

한상동이 언약적 충성심으로 대항하였던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는 더 이상 이 땅에서 강요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방이후 현대한국사회에 (언약적 관점에서) 반역적 이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사실은 해방이후 한국사회는 그 반역적 이념들로 홍역을 앓아왔다. 그러나 흐룬 판 프린스터러처럼 영적 안목으로 그 이념들의 (언약적 관점에서) 반역적 정체를 밝히면서 대응하는 노력은 대체로 미흡하였다. 해방이후 자유로운 민주적 사회 환경에서라면 더욱, 그리스도인에게 기대되는 언약적 충성을 교회 안에만 한정하기보다, 기독교공동체의 기독교교육을 통해 사회를 개혁하는 노력으로 나아가야 했지만, 이원론적인 성향의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운동은 그 초점이 개인 신앙영역 안의 도덕성에 맞추어져 있어서 효과적이지 못했다. 자녀들이 언약적 충성심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독교학교가 필요하다는 판단, 기독교학교를 통해 사회를 개혁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개종의 첫 세대들에게 기독교가정교육은 별로 주목받지 못한다. 그러나 외부에서 개종해오는 사람보다 점차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양육 받은 구성원들이 교회 안에 더 많아지는 오늘날, 기독교가정교육은 주요한 과제로 등장한다. 또 한국사회에서 기독교인 인구가 늘어나고 기독교인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무척 커졌다. 이러한 조건은 기독교교육이 교회 내에 한정되고 며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에서도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영역을 인정받거나, 아니면 기독교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로 발전한다. 그래서 최근 기독교대안 학교들이 설립되고 이에 관심을 갖는 신실한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다.

한상동에게서 표현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언약적 충성은, 교회와 신학

의 영역으로부터, 사실은 해방직후부터, 가정과 학교와 교육의 영역으로도 확장되었어야 했다. 많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이러한 의미에서, 한상동 강좌를 통해 한상동에 대한 추억과 칭송뿐만 아니라 한상동에게서 발견된 정신에서 출발하여 발전적으로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특별한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언약의 이해는 가정과 학교와 교육에 대한 논의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편. (1993). *현법*.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 이상규 최수경 편. (2000). *한상동 목사, 그의 생애와 신앙*. 부산: 글마당.
- 이상규. (2006). *한상동과 그의 시대*. 서울: SFC.
- 조성국. (2000). 기독교교육의 원형으로서의 구약성경의 언약과 교육. 고신대학
교논문집. 제25집. 69-80.
- 조성국 역. (2004). *하이델베르그기독교교리교육서*. 부산: 고신대학교부설기독
교교육연구소.
- 조성국. (2008). 호룬 판 프린스터러의 기독교교육사상. *한국복음주의 기독교교
육학회 제12회 논문발표회* 자료집.
- 한상동. (불명). *한상동목사설교집 1-7*. (육필설교편집본).
- 한상동. (1970). *신앙세계와 천국*. 부산: 칼빈사.
- 한상동. (1980). *고난과 승리*. 부산: 고려신학대학 교회문제연구소.
- Bushnell, H. (1861). *Christian nurture*. 김도일 역. (2004) *기독교적 양육*.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교출판부.
- Langley, M.R. (1989). *Groen van Prinsterer(1801-1876): vader van die
antirevolusionere reformatoriese politiek*. Potchefstroom: PU vir CHO.
- Robertson, P. (1980). *The Christ of the Covenant*. Phillipsburg: Presbyterian &
Reformed Publishing Company.
- Van Dyke, H. (1989). *Groen van Prinsterer's lectures on unbelief and revolution*.
Jordan Station, Ontario: Wedge Publishing Foundation.
- Van Prinsterer, G. (1922). *Ongeloof en revolutie: een reeks van historische
voorlezingen*. (bewerked en aangevuld door Diepenhorst, P.A.). Kampen:
J.H.Kok.